울산 고래관광의 발전방향

김도일*, 최우리**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Ulsan's Whale Sightseeing

Do-Yle Kim*, Woo-Lee Choi**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요 약

본 연구는 울산 관광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고래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상공회의소의 서비스산업육성보고서 및 관광산업육성 보고서에 기초하여 단계별 연계형 고래관광을 제안하였다. 또한 포지셔닝 및 촉진 전략을 제시하고 저녁시간 대 휴식 공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Ulsan's sightseeing and propose the direction and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Ulsan's whale sightseeing. Based on the research reports of Uls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for services development and sightseeing development, it proposed combinational whale sightseeing in stages. Also it proposed positioning and promotional strategies and resting places and programs for evening time.

I. 서 론

울산은 국내에서 고래관광을 선보인 유일한 곳이다. 울산에는 역사적으로 고래포경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이와 관련한 유물이 남아 있는 곳이다. 2005년에 고래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며 현재 고래테마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등 울산은 여러 고래관련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고래 유람선이 운행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관광사업은 7개 광역시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래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울산 전체의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울산 고래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및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울산 관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고래관광산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투고 일자 : 2014. 8.29., 게재확정일자 : 2014.11.30.
교신 저자 : 김도일

II. 울산 관광산업의 현황분석

2.1 울산 관광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울산의 관광산업의 현황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울산시에서 2010년 10월 울산시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286명은 울산을 산업도시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관광도시로의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표 1. 울산의 도시 이미지

구분	1위	2위	3위	3위	3위	6위	7위	8위	합계
	산업도시	생태도시	행정도시	문화도시	역사도시	관광도시	농업도시	기타	
응답비율(%)	87.4	4.2	1.7	1.7	1.7	1.4	1.0	0.5	100.0

자료원: 울산시 2010년 관광객 의견조사

이들이 차후 선호하는 관광형태를 보면 산업관광과 해양관광이 18.9%와 1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응답자 304명이 627개 지역을 방문한 것으로 응답하여 관광객들이 평균 2개 정도의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부관광객들은 복수의 지역을 관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선호하는 관광 형태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합 계
	산업관광	해양관광	도심관광	체험관광	산악관광	문화관광	역사관광	기타	
응답 비율(%)	18.9	18.5	8.7	8.4	7.0	5.9	5.6	27.0	100.0

자료원: 울산시 2010년 관광객 의견조사

표 3. 방문지역

구 분	합 계	영남 알프스 지역	주 전 정 자	일산해 수욕장, 대왕암	간절곶	반구대 암각화	외고산 옹 기 마 을	고래 박물관	울 산 대공원	태화강 대공원, 선바위	현 대 자동차, 중공업, SK	기 타
빈도	627	147	55	35	61	103	22	67	76	23	4	34
비율	100%	23.4	8.8	5.6	9.7	16.4	3.5	10.7	12.1	3.7	0.6	5.4

자료원: 2011년, 20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1년,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에 의하면 울산은 방문지별 여행자 수에서 16개 시도 중 16위, 7대 광역시 중 7위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 그러나 2010년에서 2012년 여행자수 증가율에 있어서 30.1%로 7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관광산업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표 4. 방문지별 여행자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12년	10,401,533	6,731,826	3,538,307	3,684,128	2,125,226	3,036,087	1,936,864
2010년	9,343,504	6,117,254	2,985,600	2,961,543	1,767,348	2,366,389	1,488,875
증가율(%)	11.3	10.0	18.5	24.4	20.2	28.3	30.1

자료원: 2011년, 20013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여행지별 개인여행만족도를 살펴보면 2010년 3.57로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2년 3.96로 증가하였고, 가구여행만족도는 4.25에서 3.9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모두 5점 척도에서 4점대에 가까워 개인 및 가구들이 울산에의 여행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인여행만족도 및 가구여행만족도은 다른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2 울산 고개관광산업의 SWOT 분석

울산 고래관광산업의 SWOT분석을 실시해 보면 기회요인으로 여가시간 증대를 들 수 있다.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울산 방문객도 증가하고 있다. 위협요인으로는 인접도시의 관광자원과의 경쟁 및 고래탐사 시 고래발견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고래관광의 강점으로는 울산은 고래관광의 이미지를 선점하였으며 산업자원 및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점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강한 반면 관광도시의 이미지는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SWOT분석에 기초하여 대략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기회-강점에 대한 전략으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래관광 및 고래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유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들 수 있다. 기회-약점에 대한 전략으로는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울산의 생태도시로서의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다. 강점-위협에 대한 전략으로는 울산의 고래관광과 인근도시인 부산 및 경주와의 연계관광의 개발을 들 수가 있다. 또한 KTX를 중심으로 한 울산으로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약점-위협에 대한 전략으로는 산업도시와 관광도시를 연계한 전략을 들 수 있다. 고래탐사의 경우 고래발견의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므로 고래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3, 4]. 또한 낮은 고래발견율에 대비하여 고래관광의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고래생태체험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II. 울산 고래관광산업의 발전방향 및 전략

3.1 울산 고개관광산업의 발전 방향

울산 고래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 인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울산에 대해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부정적 인식의 전환이다. 특히 울산이 산업도시로 발전하면서 가지면서 공장과 연관된 공해적 이미지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이다. 인접도시와 경쟁하는 현 상황에서 울산의 차별적 이미지를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울산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강점들의 연계이다. 울산은 산업이 강한 도시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해양자원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3.2 울산 고래관광산업의 발전 전략

2013년 상공회의소 울산지역 3차산업 육성방안보고서[5] 및 2014년 울산지역 5대 테마 관광산업 육성방안 보고서[6]에 의하면 울산관광산업의 방안으로 5대 테마 연계형 관광산업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산악, 해양, 생태, 산업, 역사문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 연계형 고래관광을 제안하고자 한다.

1단계로 고래관광과 산업관광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강한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울산의 산업도시로서의 국가중추적 위상의 인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고래관광과 산업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고래관광과 산업관광을 연계한 프로그램 및 관광코스의 개발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울산의 생태산업도시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제고하게 될 것이다.

2단계로 고래관광과 해양관광을 연계하는 것이다. 울산의 해양자원(해변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간절곶 등 기존 알려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래관광을 해양관광으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로 복합적 연계형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즉 최종적으로 산업, 해양, 산악, 생태, 역사문화의 5대 테마 연계형 관광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또한 5대 테마 중 부분적 연계형 관광의 개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관광과 해양관광을 묶을 수 있다. 해양관광에는 고래관광이 포함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연계형 고래관광에 대한 방안을 세웠으면 이에 대한 포지셔닝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울산의 연계형 고래관광의 지속적 포지셔닝 및 촉진이 필요하다. 생태산업도시 즉, 고래와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의 이미지 정립 및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및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고래관광 여행상품의 지속적 개발이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더하여 고래관련 관광 이후의 시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저녁시간대 휴식공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는 숙박 및 야영지, 휴양림의 개발이 이루어져 숙박형 관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야경크루즈를 포함하여 저녁시간대 프로그램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울산 관광산업을 살펴보면서 울산 고래관광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울산 고래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연계한 고래관광산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고래관광의 핵심인 고래 발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래발견율이 낮은 현 상황에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울산 고래관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울산 고래관광산업에 대한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전략들을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수립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고래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고래탐사에 대한 소비자의견조사가 이루어져 불만사항을 발견하고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울산광역시, 2010년 관광객 의견조사, 2010.
[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행실태조사, 2011, 2013.
[3] Song, K. J., " Potential areas for whale watching in Korean waters," Tourism in Marine Environments, 8(4), 213-219, 2013.
[4] 송경준, 주봉현, 정의필, 신만균, "울산 해역에서 운항하는 고래바다여행선의 고래 발견율 향상을 위한 방안," 한국고래문화학회지, Vol. 1, 11-15, 2013.
[5]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3차산업 육성방안 보고서, 2013.
[6]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지역 5대 테마 관광산업 육성방안 보고서, 2014.

[저자소개]

김도일(Do-Yle Kim)
1981년 2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학사
1984년 2월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석사
1991년 5월 The University of Iowa MBA
1996년 12월 The University of Iowa 경영학박사(마케팅)
1998년 9월~현재 울산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최우리(Woo-Lee Choi)
2003년 2월 경주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학사
2005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석사
2010년 2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2007년 3월~2011년 12월 울산대학교 외래강사
2012년 3월~현재 울산대학교 객원 교수